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1호 [루게 제24624호] 주체103(2014)년 7월 30일 (수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최후승리를 위한

조선녀성들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을 안아온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발포기념일이 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 35(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신것은 우리 조선녀성들이 온갖 사회적질곡과 불평등, 천대와 무권리속에서 헤방되어 값높은 삶과 행복을 누릴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은 거대한 정치적사변이었다.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녀성들은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불운한 운명에 종지부를 찍고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뜻깊은 남녀평등권법발포기념일을 맞이한 지금 우리의 전체 녀성들의 가슴마다에는 주체적인 조선녀성운동의 개척자, 창조자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갈 불같은 맹세가 세차게 맥박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근 70오상에 걸치는 조선녀성운동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 위대한 평등도자를 모신 녀성문제해결의 시대적요구를 창조해온 궁극적인 력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혁명과 건설, 사회발전에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조선녀성운동을 혁명화하여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항일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조선녀성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그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어머니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녀성들을 참된 혁명가

로 키우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녀성들은 조국해방의 첫 기슭에서부터 나라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참모습이 바지해올수 있었다. 우리 녀성들이 누려온 높은 존엄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의 갈피마다에도, 조국해방의 위훈속에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령도의 손길이 어그러졌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자애로운 어머니,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살며 투쟁해온것은 우리 조선녀성들의 크나큰 행운이며 영광이다. 오늘 주체적인 조선녀성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녀성들을 따뜻이 보살피시며 그들을 나라의 영웅으로, 시대의 꽃으로 내세워주고계신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시작되는 첫해에 제4차 전국여성대회를 마련해주시고 건설시찰의 길에서 녀성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을 만나실 때마다 더없이 대견히 여기시며 참된 녀성혁명가라는 값높은 칭호도 안겨주시는분위기를 조성하시였다. 평범한 녀성병행사의 소박한 칭도 잊지 않으시고 영광의 대회장에서 아끼아끼까지 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신한 은정은 온 나라 전체 녀성들과 우리 인민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녀성들을 위한 일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에 의하여 단 몇달사이 김정숙형양방직공장 로동조합속에서 일떠서는것과 같은 기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격동적인 현실이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녀성들이 있지만 조선녀성들처럼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존중속에 세기를 이어가며 자주적존엄과 권리, 값높은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복받은 녀성들은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위한 혁명적전군을 거느리시는 우리 녀성들의 사상적신장품모는 대단히 훌륭하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떠맡고 빛나는 주춧돌이 되고 믿거름이 되려는것이 오늘 우리 녀성들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의지로 되고있다.

우리 녀성들은 당과 수령을 리없이 믿고 깨닫는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충정의 인간, 건전적혁명가들이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전군경에서 일일단신 당과 수령을 순결하게 받드는 우리 녀성들의 고결한 품모가 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깨끗한 지성을 바쳐가고 있다. 우리 녀성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더없이 소중한 혁명적본분으로, 도덕의 의리로 되고있다. 지금 우리 녀성들의 심장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삶의 전부이며 주체적혁명가로서 오늘도 활약하고 있는것을 믿고 있다. 혁명적본분으로, 도덕의 의리로 되고있다. 지금 우리 녀성들의 심장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삶의 전부이며 주체적혁명가로서 오늘도 활약하고 있는것을 믿고 있다. 혁명적본분으로, 도덕의 의리로 되고있다. 지금 우리 녀성들의 심장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삶의 전부이며 주체적혁명가로서 오늘도 활약하고 있는것을 믿고 있다. 혁명적본분으로, 도덕의 의리로 되고있다.

총진군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본분을 다하자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혼연일체의 송고한 화복을 펼쳐가는 우리 녀성들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훌륭하다. 순간을 살아도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모든 삶에 수평결사옹위의 길에 바치려는 불같은 충정을 지닌 녀성혁명가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크나큰 자랑이다. 우리 녀성들은 사회주의수호와 조국평안통일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열렬한 애국자들이다. 조국수호, 조국평안통일의 길에 자신과 가정의 행복이 있다는것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 녀성들도 지닐수 없는 조선녀성들의 확고한 애국신조이다. 오늘 우리 녀성들의 불타는 애국심은 반제국사적전의 전초진들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계급의 총대에도 비껴있고 단숨에의 기상이 양동하는 중요대상건설장에도 어려움이 없는 반제국사적전의 전초진들을 믿을 수 있다. 애국심이 얼마나 강렬한지 하는 것을 잘 알수 있다.

우함하고 근면한 우리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며 창조하는 위훈들은 그대 백두산대국의 전진을 떠미는 고귀한 업적으로 되고있다.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간직한 녀성들, 자기 초소, 자기 일터를 찬란한 미개개 있다는 억척불편한 것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불의의 정황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결사보위할 리정심영웅과 같은 수령결사옹위투사들이 수없이 배출되고있다. 최전선총대들과 공장과 농촌, 일터마다서서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혼연일체의 송고한 화복을 펼쳐가는 우리 녀성들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훌륭하다. 순간을 살아도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모든 삶에 수평결사옹위의 길에 바치려는 불같은 충정을 지닌 녀성혁명가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크나큰 자랑이다. 우리 녀성들은 사회주의수호와 조국평안통일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열렬한 애국자들이다. 조국수호, 조국평안통일의 길에 자신과 가정의 행복이 있다는것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 녀성들도 지닐수 없는 조선녀성들의 확고한 애국신조이다. 오늘 우리 녀성들의 불타는 애국심은 반제국사적전의 전초진들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계급의 총대에도 비껴있고 단숨에의 기상이 양동하는 중요대상건설장에도 어려움이 없는 반제국사적전의 전초진들을 믿을 수 있다. 애국심이 얼마나 강렬한지 하는 것을 잘 알수 있다.

우함하고 근면한 우리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며 창조하는 위훈들은 그대 백두산대국의 전진을 떠미는 고귀한 업적으로 되고있다.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간직한 녀성들, 자기 초소, 자기 일터를 찬란한 미개개 있다는 억척불편한 것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불의의 정황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결사보위할 리정심영웅과 같은 수령결사옹위투사들이 수없이 배출되고있다. 최전선총대들과 공장과 농촌, 일터마다서서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생활의 창조자들이다. 세기를 이어 승승장구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밑바탕에는 우리 녀성들의 숨은 노력과 헌신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모진 시련을 웃음으로 헤쳐온 혁명가들이 우리 녀성들이다. 우리 녀성들의 강 의하고 열정적인 모습, 무한한 사랑과 헌신은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생활의 향기가 차넘치게 한 자랑분이 되었다. 오늘도 우리 녀성들은 시대의 꽃으로 피어나 빛나고 있다. 새로운 생활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사회의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돌보며 집단의 화복과 오늘 우리 녀성들의 불타는 애국심은 반제국사적전의 전초진들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계급의 총대에도 비껴있고 단숨에의 기상이 양동하는 중요대상건설장에도 어려움이 없는 반제국사적전의 전초진들을 믿을 수 있다. 애국심이 얼마나 강렬한지 하는 것을 잘 알수 있다.

우함하고 근면한 우리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며 창조하는 위훈들은 그대 백두산대국의 전진을 떠미는 고귀한 업적으로 되고있다.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간직한 녀성들, 자기 초소, 자기 일터를 찬란한 미개개 있다는 억척불편한 것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불의의 정황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결사보위할 리정심영웅과 같은 수령결사옹위투사들이 수없이 배출되고있다. 최전선총대들과 공장과 농촌, 일터마다서서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함하고 근면한 우리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며 창조하는 위훈들은 그대 백두산대국의 전진을 떠미는 고귀한 업적으로 되고있다.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간직한 녀성들, 자기 초소, 자기 일터를 찬란한 미개개 있다는 억척불편한 것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불의의 정황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결사보위할 리정심영웅과 같은 수령결사옹위투사들이 수없이 배출되고있다. 최전선총대들과 공장과 농촌, 일터마다서서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세대가 바뀌어도 이 전통을 세세년년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투철한 수평결사옹위정신은 우리 녀성들이 한생토록 심장속에 간직하고 구원해나가야 할 훌륭한 귀감이며 본보기이다. 모든 녀성들은 김정숙동지의 송고한 모범을 따라 수평결사옹위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건전한 녀성혁과 헌신은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생활의 향기가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우리 녀성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열정,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녀성들은 창조와 변혁으로 들끓는 오늘의 총진군경에서 선군조선의 녀성들이 어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는가를 온 세상에 독특히 보여주어야 한다. 현지도단위와 녀성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며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 농업전선과 과학기술전선의 녀성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의 전초선에 서겠다는 열의와 자각을 안고 높은 생산적양양과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를 내놓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녀성들은 1950년대처럼,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처럼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자각을 새겨가야 한다. 모든 단위의 녀성들은 다 바쳐 우리 조국의 힘찬 전진을 떠맡어나가는데서 한류 단단

히 하여야 한다. 조국의 미래를 가꾸고 아름다운 생활을 꾸려나가는데서 녀성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녀성들은 백두산대국의 앞날의 기둥들을 키우는 교양자, 원예사라는 높은 자각을 지니고 자식들이 혁명적인 사상정신과 고상한 문화도덕적품성을 갖추도록 늘 교양하고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근인문화와 군인가족들의 전투적인 생활기풍을 따라배워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생활문화가 꽃피고 광범적인 분위기가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적품모를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의 본래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일신발전시키는 대가정으로 꾸려나가는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어머니로서, 안해로서, 며느리로서 가정과 사회에 지닌 도덕적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 어디에서나 《우리 집사람》, 《우리 며느리》의 노래가 울려나오게 하여야 한다.

녀평조직원들은 녀성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켜 모든 동맹원들을 참된 녀성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녀성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녀평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녀평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녀평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녀평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녀평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녀평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녀평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녀평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녀평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온 나라에 집단적경쟁열풍이 휘몰아친다

황해북도산원 개원식 진행

온 나라에 집단적경쟁열풍이 휘몰아친다

【사리원 7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황해북도산원이 사리원시에 열렸다. 새로 건설된 산원에는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갖춘 산과, 부인과, 유산조양과를 비롯한 전문과들과 수습개의 치료실, 입원실들이 꾸려져있고 평양산원과의 사, 군인병원들과의 먼거리의 로동사체계가 세워져있다. 도산원이 완공됨으로써 도의 녀성들의 치료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훌륭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황해북도산원 개원식이 29일에 진행되었다. 강하국보조선, 박대희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

부문 일꾼들, 인민군군인들,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이 개원식에 참가하였다. 개원식에서는 임훈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개원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산원건설을 군민협동작전으로 다그쳐 끝내도록 해주셨다고 강조하였다. 건설자들의 유훈과 당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도의 설계일꾼들이 주체적미학사상과 인민의 지향에 맞게 설계를 최단기간에 완성하였으므로 건설을 책임진 일꾼들도 필요한 자재보장사업

세멘트생산 비약적으로 장성

건재생산단위들에서 장엄한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각기 건재생산단위들에서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한 생산동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재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건설에 필요한 건축재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산원과 순천을 비롯한 나라의 대규모세멘트생산단위들에서 우리 당이 높이 올린 대건설의 포성에 호응하는 생산적양양의 승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산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진초명이 될때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느끼고 진대없는 세멘트중산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온 연합기업소에 세멘트생산실적을 부쩍 높이기 위한 창조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지난 삼반년간 세멘트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8월, 월별전투목표를 더 높이 내세우고 계속혁신의 한길로 출발을 하고있다. 대중의 양양 열의속에 세멘트중산의 지름길을 여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과 합리적 공정운영방도들이 나오고 생산현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중산동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공경간 협동을 긴밀히 하여 소성로의 가동일수를 높이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석탄분쇄직장과 세멘트직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도 오늘의 하루하루가 대건설전투장의 승결과 잇닿아있다는것을 자각하고 중요설비의 보수일일을 훨씬 앞당기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세멘트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연합기업소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혁명적열의속에 설비들의 가동률이 전 없이 높아져 기업소적인 세멘트생산계획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1.4배이상 넘쳐 수행되고 있다. 천내리세멘트공장에서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원만히 보내주기 위한 중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공장의 일꾼들은 중산의 돌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건설성과 확대

위성과학자거리건설 직맹돌격대려단에서 격대원들의 정신력이 공사실적으로 이어지도록 이끌었다. 려단에서는 돌격대원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모를 박고 화선성경제선등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려단에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다. 평안북도, 라선시대대들이 경쟁대원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평안북도대대의 지휘관들이 돌격대원들의 경쟁열의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공사를 다그치며 새 기준, 새 기록을 편이 어 창조해나가고있다. 대대지휘관들은 돌격대원들의 생활조건보장에 큰 힘을 넣고있다. 무침한 식탁을 마련해주기 위한 후방사업에는 물론 돌격대원들의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에

무침한 식탁을 마련해주기 위한 후방사업에는 물론 돌격대원들의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에 평양시대대에서는 사회주의경쟁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돌격대원들을 적극 내세워주는 방법으로 경쟁열의를 높여주고있다. 혁신자축하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돌격대원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긍정적소행들을 널리 소개전진하고있다. 함경남도대대의 지휘관들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색을 깊이 하고 그것을 실천에 적극 구현해나가고있다. 대대에서는 많은 대상공사과제수행에서 실적을 내고있는 돌격대원들의 혁신적인 소식을 그가 속한 단위의 당조직에 제때에 통보해주고 있으며 당조직에서는 편지를 읽어주는 방법으로 승부심을 높여주고있다. 이밖에도 황해북도대대, 성, 중앙기관대대, 남포시대대, 철도성대대를 비롯한 단위들이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단위가 맡은 대상별, 단계별공사과제를 일정계획대로 밀고나가고있다. 직맹돌격대려단 지휘부에서는 해룡은 일에 만족하지 않고 고구려 돌격대원들은 한사각 같이 떨쳐나 제방공사를 제기 없이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전 경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 있다. - 신의 주 방 직 공 장 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포 화 속 의 기 적 소 리

지난 6월말 본사로 철도성혁 명사적판에서 한층의 원고를 보내왔다. 원고에는 글썽거리기 귀찮았는데 사적판 학술연구실에서 입수한 수기를 보내내려 승기념일과 관련한 집필에 리용해달라라는 것이었다. 수기의 필자는 전쟁시기 조선인민군 철도사령부관하 신성천기관에서 근무한 박영실이라는 여성이었다.

수기에서는 철도병이라는 말이 자주 나왔다. 모퉁이 적지 않은 사람을 특히 전화의 내대를 제할수 없었던 세대에게는 귀에 섰지만 전쟁시기 보병, 포병, 탱크병을 비롯한 여러 병종 군인들과 함께 조국방위전의 전열에 있던 철도수송전사들을 흔히 그렇게 불렀다. 그때 침략자들을 쫓아내기로 내달리는 공적사범들과 백병전의 총창이 번뜩이는 고지들에서 그들의 모퉁이 보지 못했다. 하지만 포가 비껴오지 않았고 일각이 천추갈던 위급한 상황에서 《관악!》, 《포탄!》, 《불대!》라고 외치는 손과 손들이 무자비한 심벌의 복수탄과 전투용물자를 쏘고 쏘는 사람들이 다른이

수송전사들이었다. 수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조국의 대지를 더듬어보느라니 북부변방의 한끝 철길로부터 심상삼륜의 이름없는 철길에 이르러까지 나라는 가로세로 두줄기 꿰뚫어놓은 신성천 철도수송전사들의 선혈이 가슴에 마차였다.

그래서 원고에 근거하여 실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수기에 반 영된 전철도수송과 관련한 역사적사실들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더우기는 필자가 나아진 처녀의 몸으로 군수철차를 문 전형적인 철도병의 한 사람이라는 데 류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실화는 어느 개별적 인물에 대한 형상이나 하나의 위훈담으로 그칠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한 여성기관사의 모습이자 전승에 기여한 수송전사들의 영웅적모습이며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위훈을 전하는 것이 전사하였거나 살아있는 모든 전쟁로병들과 전사공로자들에게 대한 시대의 경의로, 우리 세대의 의무로 되게 때문이다.

바람 맞는 길도 아니고 노상 폭격속을 다니고 판가루를 마시며 철길우에서 밤낮을 보내야 하는데 몸이라도 상할까봐 그러는 것이, 끝내 여태 살면서 처녀가 기관사를 랐다는 말은 들어본적 없었나?》

영실이는 부르튼 손에 천오래 기를 돌리며 이를 사러들었다. 《그래도 타야겠어요. 기공탄에 맞았도 좋고 폭격에 제가 돼도 일이지요. 인우님들과 끝까지 해보겠어요. 물어뜯으면서라도 싸우겠습니다.》

《미제의 <추기공세>를 박산내자!》, 《승리를 향하여!》

비호같이 내닫는 군수철차의 차방들에서 언뜻언뜻 비껴오는 이런 글발을 읽으며 총들이 경례를 보내는 철다리의 초병도, 위장망을 쓰고 버가움을 하다가 손을 흔드는 농민들도 그때 다는 모르고있었다. 무기와 탄약, 포탄과 식량을 실은 화차를 끌고 전진으로 달리는 기관차들이 철도병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는가!

그는 기관사가 되었다. 기관사의 16호기관차에 오른 그는 자기 손으로 처음으로 기차를 움직였다. 만점을 받은 강철차들은 천백배 복수의 열기로 달아오른 배루를 세차게 구르며 불꽃을 뿜기 시작했다. 날이 커져가는 포성을 따라 기적소리가 더 높이 울렸다.

어제에 소외의 군사정호를 없애고 철도철거를 막아가는 처녀기관사의 나이는 19살이었다.

도병들의 의지와 기상이 한껏 차넘치었다. 그에 대해 1952년 3월 15일부 《로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여성모범기관사 박영실동무는 지난해의 자기 투쟁경험을 피력하면서 금년에는 200일 무사고운전을 전개하여 더욱 높은 성과를 거두는데 대한 자기 결의를 표명하였다.》

전쟁 전기간 미제는 철도를 파괴하는데 광분하였다. 군수물자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철도역과 철다리, 철길에 대한 집중폭격, 포격에 매달렸다. 전선사부로 군수화차 20차량을 긴급수송할 때의 임무를 받고 영실이가 급수를 위해 기관차를 끌고 역구내를 지날 때였다. 불에 적기편대나 달려들었다. 사방에 연발 불기둥이 솟는 속엔 한 화차가 화염에 휩싸였다. 불이 번지면 뒤에 서있는 기관차와 화차가 위험에 처할수 있었다. 그는 폭격을 뚫고 불타던 화차에 뛰어올라 살수소스를 들이쳤다. 이어 선두기관차를 끌고 뒤차들을 안전구역으로 인도하였다. 화염으로 철길이 보이지 않았고 파면이 기관사들이 마구 날아들었지만 그는 두렵없이 기차를 달렸다. 그 여는 길로 다른 기관차들이 뒤따랐다. 적기총탄이 머리맡을 스쳐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만 그는 가감없이 달렸다. 철도성혁명사적판에는 당시와 관련한 이런 자료가 있었다.

한 남성기관사가 자기가 그랬다고 막아나섰지만 영실이는 조역에게 제촉하였다. 《어서 발차신호를 주십시오. 저도 1211고지 전투원입니다.》

야음을 타고 군수화차 15차량이 수백리길을 떠났다. 적들은 조명탄까지 쏘아놓고 폭격에 날뛰었다. 영실이는 적기가 정면에서 달려들면 급정차하고 선화면 내닫고 뒤에 내리꽂으면 후진하면서 조역들을 돌파하였다. 원산을 앞둔 개활지대에서 적기와 또다시 맞닥들리자 이번에는 좌우로 증기를 내뿜어 절인가 화염에 싸인것처럼 기만하였다. 그렇게 적기를 따돌리고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였다. 기관조사와 다른 한방에서 차례로 움직일줄 몰랐다. 그들의 군복은 물에 젖어있었다. 영실이는 몸부림치면서 그들을 막 흔들었다. 기관조사가 간신히 눈을 떴다. 《기관사동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전선사부로 군수화차 20차량을 긴급수송할 때의 임무를 받고 영실이가 급수를 위해 기관차를 끌고 역구내를 지날 때였다. 불에 적기편대나 달려들었다. 사방에 연발 불기둥이 솟는 속엔 한 화차가 화염에 휩싸였다. 불이 번지면 뒤에 서있는 기관차와 화차가 위험에 처할수 있었다. 그는 두렵없이 기차를 달렸다. 그 여는 길로 다른 기관차들이 뒤따랐다. 적기총탄이 머리맡을 스쳐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만 그는 가감없이 달렸다. 철도성혁명사적판에는 당시와 관련한 이런 자료가 있었다.

《적들의 화염에 잠긴 8대의 기관차와 26차량의 군수화차들이 박영실동무의 희생적인 투쟁에 의하여 구출되었다.》

《적들의 화염에 잠긴 8대의 기관차와 26차량의 군수화차들이 박영실동무의 희생적인 투쟁에 의하여 구출되었다.》

수기엔 그후 이야기 없었다. 그래서 냉면에서 살고 있다는 박영실동무를 찾아가 후일담을 들으려 했다. 그때 철도성혁명사적판에서 그가 견학차로 평양에 올라와 철도합숙 8층 12호실에 들었다고 알려졌다. 그리하여 철도합숙을 찾았다. 전화의 날로부터 60여년 세월이 흘러 로병은 여든두살이었다. 《예 수기를 석왕사도착으로 끝냈습니까?》 그는 인차 대답하지 못하였

기관차에 온 처녀

전시기관사, 이렇게 부르면 누구든지 예술영화 《철길우에서》의 주인공처럼 활기찬 기관사안장을 두른 여고생과 근엄한 남성기관사의 모습을 상상해볼것이다. 그러나 전쟁시기 포연을 헤치며 전진으로 달리는 기관차들에서는 녀성의 모습도 볼수 없었다. 불라는 고지에서 간호원 조순옥이 수류탄뭉치를 안고 적땅으로 맞받아나갔듯이, 몸이 진동하는 하늘에서 비행사 타인회기 적기를 향해 돌진하고 파인된 해전에서 용감한 처녀무전수들이 적들을 수장하는 함대의 눈과 귀가 되었듯이 전화의 날이 땅의 녀성들은 기관차도 돌면서 무비의 기계와 공공을 펼쳤다.

박영실녀성의 처음엔 기관조사를, 그가 처녀의 몸으로 기관차에 오른것은 전쟁전부터 기관차에서 일한것과는 무관하다. 사실 《증기 울렷!》, 《투탄 빨리!》하고 기관차가 무리로 내리는 구령에 따라 화실에 석탄을 퍼넣는 작업은 섬약한 그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중노동이었다. 그는 투탄작업에 매일 녹초가 되곤 하였다. 땅우에서와 달리 철길우엔 전

철길우의 1211고지

박영실녀성의 수기제목은 《포화속의 기적소리》였다. 원고를 읽으며 제목을 왜 그렇게 달았는지 사유를 알게 되었다. 이 글에 원고의 제목을 그대로 수용할것은 그대뿐이다. 기적소리! 그가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된 계기가 있었다. 1952년 2월말, 한달간엔 걸친 수송전투를 마치고 기관차로 돌아온 그는 평양에서 열린 철도일군영성자대회에 참가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제가요? 혹시 이름이 삭갈런게 아닐까요? 다른 기관구들에게도 녀성기관사가 있는데 거기 나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이처럼 그는 믿기 어려웠다. 《내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 대회에서 토론까지...》 그는 평양으로 가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였다. 주제 41(1952)년 3월 11일, 모란봉지하극장은 만세의 함성으로 떠나갈것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철도일군영성자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었습니다. 품결에도 그대인 아버지수령님, 깊은 밤 수송길을 달릴 때에도, 이른 새벽 역으로 돌아올 때에도 마음속으로 그려본 자애로운 영성...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회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지나온 전

제29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입소식 진행

제29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입소식이 29일에 진행되었다. 《경에하는 김정은장군님 고맙습니다》, 《제29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등의 구호들이 입소식장에 나붙어 있었다. 입소식에는 정영원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제일룡 강원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과 우리 나라, 판계부문 일군들과 우리 나라 학생소년야영단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제29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입소식이 29일에 진행되었다. 《경에하는 김정은장군님 고맙습니다》, 《제29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등의 구호들이 입소식장에 나붙어 있었다. 입소식에는 정영원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제일룡 강원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과 우리 나라, 판계부문 일군들과 우리 나라 학생소년야영단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제13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개막

제13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가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되었다. 당의 과학기술증진노선을 받들고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 단위들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 발명가들이 참가하는 전람회에는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직할시)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2600여건의 발명 및 새 기술성품작품들이

제13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가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되었다. 당의 과학기술증진노선을 받들고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 단위들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 발명가들이 참가하는 전람회에는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직할시)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2600여건의 발명 및 새 기술성품작품들이

스위스외무성협조사무소 대표 국경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국경절에 즈음하여 토마스 피슬러 주조 스위스련방 외무성협조사무소 대표가 29일 대동강의교 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공석중 외무성 부상, 판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

국경절에 즈음하여 토마스 피슬러 주조 스위스련방 외무성협조사무소 대표가 29일 대동강의교 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공석중 외무성 부상, 판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미하일 렌네희코프수기를 단장으로 하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에 들어선 손님

스위스외무성협조사무소 대표 국경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국경절에 즈음하여 토마스 피슬러 주조 스위스련방 외무성협조사무소 대표가 29일 대동강의교 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공석중 외무성 부상, 판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

국경절에 즈음하여 토마스 피슬러 주조 스위스련방 외무성협조사무소 대표가 29일 대동강의교 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공석중 외무성 부상, 판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

제13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개막

제13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가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되었다. 당의 과학기술증진노선을 받들고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 단위들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 발명가들이 참가하는 전람회에는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직할시)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2600여건의 발명 및 새 기술성품작품들이

제13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가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되었다. 당의 과학기술증진노선을 받들고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 단위들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 발명가들이 참가하는 전람회에는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직할시)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2600여건의 발명 및 새 기술성품작품들이

제29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입소식 진행



제29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입소식 진행

독자의 편지

친 어머니의 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함흥시 흥덕구역에 사는 특유영에군인입니다. 고마운 당일군을 자랑하고싶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지난해 김만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간 저를 극진히 돌봐준 블라인드인원지관리소 조급당에서 김원남동지는 올해에도 우리 특유영에군인들을 친 어머니의 심정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얼마전 어느 일요일에 저는 같이 치료받는 특유영에군인들인 흥덕구역 원실동 립친일, 안주시 낙원동 안인호동무들과 함께 블라인드인원지에 휴식하러 갔습니다.

독자의 편지

친 어머니의 정을 느꼈습니다

인로양소에서 치료받고는 저는 그가 마련한 새 삼촌차를 받아 안았습니다. 고마움을 금치 못하는 저에게 조급당에서동지는 조국을 위해 피흘린 특유영에군인들을 잘 돌봐주는것은 당일군의 응당인 본분이라고,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서슴없이 말하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키워주신 당일군의 모습에서 저는 어머니 우리 당의 사랑을 제부도 절감하고있습니다. 고마운 당과 조국을 위하여 목숨도 바칠 맹세를 더욱 가다듬었습니다. 함흥시 흥덕구역 흥덕4동 26인민반 위 명 용

독자의 편지

친 어머니의 정을 느꼈습니다

인로양소에서 치료받고는 저는 그가 마련한 새 삼촌차를 받아 안았습니다. 고마움을 금치 못하는 저에게 조급당에서동지는 조국을 위해 피흘린 특유영에군인들을 잘 돌봐주는것은 당일군의 응당인 본분이라고,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서슴없이 말하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키워주신 당일군의 모습에서 저는 어머니 우리 당의 사랑을 제부도 절감하고있습니다. 고마운 당과 조국을 위하여 목숨도 바칠 맹세를 더욱 가다듬었습니다. 함흥시 흥덕구역 흥덕4동 26인민반 위 명 용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인민의 락원

사랑이 넘치는 여성들의 화원을 그리며

《이북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사회적진보의 향기로운 꽃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을 구가하고 있다.》

《여성들의 존엄이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여성의 온갖 권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 이북은 정녕 여성의 락원이다.》

《여성에 대한 사랑의 정자가 펼쳐지는 북에서 살고있다.》

이것은 주체의 사회주의강성 국가를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생활의 꽃, 나라의 꽃으로 향기풍기며 행복을 창조해가는 우리 여성들의 긍지높은 모습을 보면서 러친 남녘겨레들의 동경과 찬탄의 목소리들이다.

한창 차별과 천대, 멸시를 받으며 시들어가는 남녘여성들에게 있어서 남성들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참된 인생을 꽃피워가는 공화국 북반부의 여성들은 커다란 동경의 대상이며 우리 공화국의 품은 그들이 갈망하는 삶과 희망의 터전인것이다. 하기에 남녘여성들은 여성존중, 여성성시의 세상인 우리 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이 세상 가장 높고 존엄높은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여성들에 대한 동경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한 여성인권문제전문가는 《이 땅의 여성은 얼음우에 떨어진 씨앗이다. 여성들은 꽃으로 필해야 필수 없는 동토대에서 식어가고 숨져가고있

다. 이 땅에서는 여성들이 잡초처럼 짓밟히지만 저 이북에서는 생활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으로 노래되고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남에서는 여자가 꽃이 아니라고 철규하고 이북에서는 여성은 꽃이라고 노래하는것인가. 그 까닭은 과연 어디에 있을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물었다.

《이북이 그렇듯 리상적인 여성복지사회의 된것은 여성들을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워주시고저 온갖 온정을 다 베푸시는 따사로운 해님을 모신 덕분이다. 해님이 없는 꽃을 바랄수 없듯이 태양이 없는 여성화원을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겠나. 이북여성들의 은혜로운 해님은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이다.》

인권의 한 여성은 《지난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사회의 최하층에서 헤매던 우리와 같은 이북의 여성들이 존엄과 영광을 누리고있다. 그러나 남녘은 일인간. 이북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자기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일하면서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속에 살고있다. 여성들의 리상천국을 마련해 주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 머리굽혀 정성의 인사를 드리고있다.》라고 격정적으로 말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한 녀교원은 《여성들의 존엄

이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여성의 온갖 권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행사되는 이북은 정녕 여성의 락원이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의 권리로 보장 받고 여성들에게 중로동과 유해로동을 하지 않도록 특별조치가 취해지고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공장과 마을, 가는 곳마다 타숙, 유치원이 있어 어머니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고있다. 쌍둥이만 낳아도 그 양육때문에 격정의 한소리로 땀이 끼질 지경이고 집안이 망할지도 통탄하는 이남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우리 조국의 전반향을 강점한 외세와 그 주구들의 반역정리로 인하여 남조선여성들에게 차제지는 운명이란 말대로 피눈물나는 수난과 치욕뿐이다. 그들은 무참히 짓밟히는 자자들의 불행한 처지를 놓고 《정정이 땅이아말로 여성인권의 불모지이고 여성들의 지옥이며 여성들이 살수 없는 땅이다.》라고 개탄하면서 여성들이 존엄과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며 사회의 꽃으로 활짝 피어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품을 그리워하고있다.

연세간 남조선의 한 문학평론가는 이렇게 하였다.

《이북의 여성정책은 해방직후부터 남녘평등을 보장하는 법도를 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뒤받침해주고있으며 여성들에

게 사회적으로 실질적평등을 주고있다.》

리화여자대학교의 대학원생이 출판물에 낸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이북에서는 여성들이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수혜의 한쪽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고있다.》

어느 한 여성단체에 망라되어 활동하고있는 한 여성인사는 우리 공화국여성들의 생활을 소개한 책을 읽고서서 《새로운 여성세계, 희한한 세계를 보았다. 이북이아말로 민중의 락원이고 여성들의 천국이다.》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여성들의 존엄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활짝 꽃피워주는 우리 공화국을 위해 살기 위해 자주동일운동을 파격히 펼쳐나사!》

바로 이것이 자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행복한 삶과 미래를 위해 남조선여성들이 가지는 신념이고 투쟁의지이다.

자주적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고 위대한 태양의 빛바람에 복된 삶을 누리려는 남녘여성들의 절절한 염원이 성취될날은 꼭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경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에 첫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은은한 색깔의 타일 바닥이며 품위있는 장식유리, 고급벽지를 붙인 구내의 벽면들, 고급석재로 된 계단과 난간, 환추들, 우아한 느낌을 주는 천정조명들, 마치도 병원이 아니라 아늑한 집에 들어선 감을 주는 유선중앙연구소이다. 최신의료설비들과 입원실 또한 사합적인 의료분야에 화자리에 없다. 다목적전선과 최신형의 CT, 초음파진단, 심전도설비들이 장비되어있다고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특히 먼거리의로복사체계가 실현되어 전국의 여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선결핵들의 조기검진 및 예방사업이 진행되고있다.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으며 효율 높은 의료봉사도 국가로부터 전적으로 보장받고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여성들의 천국이라고 부른다.

여성들의 천국!

그렇다. 세계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 나라에서처럼 당과 국가가 여성들의 건강을 돌봐주는것을 정책화, 제도화하고 천만금을 들여 현대적인 병원들을 세워주어 평범한 여성들이 무상으로 특별한로복사를 받으며 건강과 활력에 넘쳐 살며 일하고있는 나라는 없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들의 천국

유선중앙연구소에 찾았던 외국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로씨아의 어느 한 신문사주필은 감성복에 이런 글을 남겼다.

《저는 오늘 이 멋진유선중앙연구소에 참관하고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여성들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국가가 이런 훌륭한 고질적 설비들을 갖춘 병원을 마련한것은 인민을 하층처럼 여기는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령도자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남의 인터넷통신 전문 기자는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에 이런 훌륭한 의료봉사체계가 실현되고있는것을 경이로 여기며 감탄을 나타내며 이렇게 썼다.

《이 연구소는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는 세계적으로 좋다는 병원도 가보고 입원도 해보았지만 이 병원은 7성병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병원은 인민을 가장 사랑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이 병원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최상급의 최상급병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우리 땅의 사랑의 품에서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는지 그 대답을 찾으려면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에 찾아가야

본사기자

전환에 전한데 어떤 피로당국은 지난 조선전쟁이후 남조선검정 미제침략군을 대상으로 하는 매춘업소를 선전하는 광고판들이 공공연히 나붙어있다고 한다.

남조선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존엄과 권리를 어지럽히기 위하여 남조선의 사회정적구조와 정치체제를 고착시키고있는 장본인은 다른이런 집권세력이다.

한가지 사실만을 놓고보자. 얼마전 피로경찰은 《세월호》침몰사건 희생자추모위원회에 참가한 여성들을 연행한 후 조사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수속을 밟도록 강요하였다. 경찰개기들은 추모집회에 참가하였던 5명의 여성들을 감방에 가두어놓고 《자살우려》나 뭐니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지옥을 들이쳤다.

남조선여성들은 미제침략군의 강압하에서 모진 고문과 수난을 당하고있다. 여성들을 한갓 성노예로 여기는 변태적인 미제침략군에 의해 수많은 남조선여성들이 정조를 유린당하고 지어 목숨까지 빼앗겼다.

여성들을 미제침략군의 성노예로 삼기위하여는 용납 못할 범죄자도 다수인런 천치사대에 항쟁한 피로침략세력이다.

최근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썩어빠진

유림의 한 여성해방운동가는 인류가 흘린 피눈물의 90%는 여성의것이라고 말한바가 있다. 정녕 지난 시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던가.

하지만 그와 달리 이 피눈물의 력사가 어찌날의 옛일로 되어버린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도 정치적무권리와 불평등속에서 여성들이 흘리는 피눈물의 력사는 계속되고있다.

속박의 사슬과 원한의 눈물로 얼룩진 여성들의 인생행로는 21세기에 들어선 오늘에도 그대로 답습되고있다.

그 반산지는 다른이런 자본주의 나라들이다.

자본주의의 썩어빠진 토양에 뿌리를 둔 수많은 여성들이 불우한 인생길을 걸고있다. 여성의 존엄과 인격이 마구 유린당하고있다. 가정폭력 등 각종범죄행위의 첫번째 희생물로 되고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여성 3명당 1명이 육체적 및 성적폭행을 당하고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매일 6만 7000명여의 여성들이 성폭행에 시달리고있다. 미국에서 가정폭력행위가 얼마나 극심한지는 《가정폭력방지법》이

로양에 뿌리를 둔 불우한 인생들

라게 피어한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결혼후를 받들때 《가정폭력방지법》을 받아내고있는 사실이 말해주고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해 128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친구에게서 폭행을 당하여 목숨을 잃었다. 미국에서는 지난 5년동안에 800여명의 여성들이 가정폭력행위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인 생존권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일자리를 제일 힘들게 얻는것도 여성들이고 제일 쉽게 떼우는것도 그들이다. 반인민성과 반동성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은 불치의 병으로 되고있다. 이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것은 여성들이다. 최근년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여성들은 경영손실을 메꾸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체들이 저지마다 버리고있는 대대적인 해고소동의 첫번째가 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들은 리윤추구에 눈이 어두운 경영주들로부터 무지막지한 상정을 강요당하고있다.

에스파냐에서 지난 2월에만도 여성실업자가 247만 7800여명에 달하였다.

핀란드에서 경제체제의 후과로 여성들의 취업현이 악화되고있다. 이 나라 신문 《헬싱키 사노마르》는 지난해 여성취업자가 2만 8000명 줄어있었다고 밝혔다.

직업을 얻었다고 해도 여성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 당하게 되는 노동생활에서의 극심한 차별은 어쩔수 없는것이다.

미국에서는 여성근로자들이 남성근로자들보다 평균 23.8%, 이탈리아에서는 16%나 적은 임금을 받고있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현대판 노예산업이 번창하고있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는 노예들의 수가 2100만명을 헤아리고있으며 그중 절반이상이 여성들이라고 한다.

최근년간만도 미국에서는 10만명여의 여성들이 매대고 약 5만명의 여성들이 성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다.

미국에서 성행하는 현대판 노예살업을 두고 미국신문 《인리 내슈널 헤럴드 트리뷴》이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새로운 전쟁을 개시할 때는 왔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본사기자 박승영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성이가 판을 치는 인권의 격리지에서 자본주의나라 여성들은 라락할대로 라락하여 각종범죄의 희생물이 되고있다.

제가 낳은 자식을 제손으로 죽이고 버리는것도 서슴치 않고있다. 미국에서는 아이를 버리는것을 허용하는 법을 등대고 태어난 딸과 10살도 되나미한 갓난아이를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버리고있다. 그에 대한 자책감, 죄의식같은것이 사라진지는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녀성이 약한 존재로 치부되는 이 나라들에서는 총이 여성들의 가장 좋은 《벗》으로 되고있다.

악몽같은 현실을 알물로 달래는 여성들도 부지기수이다. 중앙에 그들은 자살을 택하고있다.

그들이 사는 110만명의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렸으며 매일 평균 2건의 자살사건이 발생하고있다고 한다.

녀성선사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속성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여성들의 불우한 처지가 달라질수 없다.

자본주의사회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인권의 동토대이다.

본사기자 박승영

오늘 남조선에서 여성들은 불공평한 사회

가 낳은 악의 희생물이 되어 삶을 짓밟히고있다.

사회적으로 적극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 차별시되고 버림받고 생존의 권리를 빼앗기고있으며 변태와 섹스를 추구하는자들의 노리게로 전락되고있다.

얼마전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의 한 아파트지하에서 세방살이로 근근히 살아가던 한 녀성의 비극적운명은 남조선여성들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도 할수있다.

10여년전에 남편을 잃은 뒤 식당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녀성은 팔을 다쳐 식당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얼마 되지 않은 수입으로 병에 걸린 딸자식을 부양해오던 그녀에게 있어서 세 해고는 그야말로 사형선고와도 같은것이였다. 모든 희망을 잃고 살아갈 길이 막힌 녀인이 선택한것이란 결국 자살이었다. 그는 두 딸자식과 함께 한탕은 세상을 저주하며 자살하였다.

남조선에서 이런 불우한 여성들이 어찌 그들뿐이겠는가.

조물리는 생활난에 더는 견딜수 없고 4살짜리 딸 자식을 품에 안고 15층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30대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는 사회

한 여성과 살기 어려워 독약을 먹고 목숨을 끊는 칠살이 될 할머니,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학비를 마련할수 없어 배운의 꿈을 버리고 세상을 하직 한 내대학생 등 남조선여성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 다 말할지언 말 없다.

남조선에서 여성들의 취업률은 남성들보다 훨씬 낮다. 직업이 없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종류이며 노동조건이 매우 한심한 상태에서 일하고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어렵고 위험한 일을 남성들과 똑같이 하고도 남성이기는 바로 로임의 절반밖에 안되는 돈을 받고있다.

기업주들은 노동력손실을 막는다고 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이를 순번대로 남도록 강요하고있다. 이로 하여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하는수없이 직업을 포기하고있다.

수많은 남조선여성들이 성노예로 전락하여 인권을 처참히 유린당하고있다. 직업을 잃고 생활난에 빠진 여성들을 노리는 매춘업자들의 포악에 의해 125만여명의 여성들이 매춘의 길에 나서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의 성매매산업은 7조원규모에 이

러렸다. 상업지구와 역들, 군부대주변 등지에 있는 성매매시설을 선전하는 광고판들이 공공연히 나붙어있다고 한다.

남조선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존엄과 권리를 어지럽히기 위하여 남조선의 사회정적구조와 정치체제를 고착시키고있는 장본인은 다른이런 집권세력이다.

한가지 사실만을 놓고보자. 얼마전 피로경찰은 《세월호》침몰사건 희생자추모위원회에 참가한 여성들을 연행한 후 조사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수속을 밟도록 강요하였다. 경찰개기들은 추모집회에 참가하였던 5명의 여성들을 감방에 가두어놓고 《자살우려》나 뭐니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지옥을 들이쳤다.

남조선여성들은 미제침략군의 강압하에서 모진 고문과 수난을 당하고있다. 여성들을 한갓 성노예로 여기는 변태적인 미제침략군에 의해 수많은 남조선여성들이 정조를 유린당하고 지어 목숨까지 빼앗겼다.

여성들을 미제침략군의 성노예로 삼기위하여는 용납 못할 범죄자도 다수인런 천치사대에 항쟁한 피로침략세력이다.

최근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본사기자 리성호

전환에 전한데 어떤 피로당국은 지난 조선전쟁이후 남조선검정 미제침략군을 대상으로 하는 매춘업소를 선전하는 광고판들이 공공연히 나붙어있다고 한다.

남조선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존엄과 권리를 어지럽히기 위하여 남조선의 사회정적구조와 정치체제를 고착시키고있는 장본인은 다른이런 집권세력이다.

한가지 사실만을 놓고보자. 얼마전 피로경찰은 《세월호》침몰사건 희생자추모위원회에 참가한 여성들을 연행한 후 조사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수속을 밟도록 강요하였다. 경찰개기들은 추모집회에 참가하였던 5명의 여성들을 감방에 가두어놓고 《자살우려》나 뭐니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지옥을 들이쳤다.

남조선여성들은 미제침략군의 강압하에서 모진 고문과 수난을 당하고있다. 여성들을 한갓 성노예로 여기는 변태적인 미제침략군에 의해 수많은 남조선여성들이 정조를 유린당하고 지어 목숨까지 빼앗겼다.

여성들을 미제침략군의 성노예로 삼기위하여는 용납 못할 범죄자도 다수인런 천치사대에 항쟁한 피로침략세력이다.

최근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중동지역에 또다시 파괴와 살륙의 참상이 펼쳐지고있다. 팔레스티나인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있는것이이다. 이스라엘은 수백명의 전투기와 직공들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인 공습을 감행하는것도 모자라 13일부터는 지상군 무력까지 투입하여 팔레스티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지 지역으로 더욱 깊숙이 쳐들어가고있다. 가지지역에 살고있는 팔레스티나주민들속에서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수백명의 공문기반 건물들과 살림집들이 폐허로 되었다.

이스라엘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린할말하는 진범인으로서의 정체를 다시금 여실히 드러내놓았다.

이스라엘의 군사적침략행위는 팔레스티나인민의 단합을 파괴하고 중동지역의 평화적발전을 억제하며 이 나라를 영원히 강경하고 지배하는 유대복고주의적정책의 령장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6월 팔레스티나에서는 팔레스티나민중해방운동(파타흐)과 팔레스티나인슬람교향운동

(하마스)사이엔 민족통일정부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팔레스티나인민은 단합된 힘으로 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창설을 비롯한 합법적권리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일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큰 불안과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나 팔레스티나의 항쟁세력을 제거하고 팔레스티나민중통일정부의 활동을 난관에 조장해보려고 압박하였다.

이스라엘은 항방병명되었던 3명의 자기 나라 청소년들이 시체로 발견되자 기다렸다는듯이 그것을 무작정 팔레스티나측과 편관시기제를 대상으로 하고있는듯이 여론을 오회하면서 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해나가고 있다. 자자들에게로 쏘려는 국

제사회계의 비난과 규탄을 모면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수상 네라나후는 가지지역에서 민간인사망자수가 계속 늘어났다고 해도 군사작전을 확대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유엔주재 이스라엘대사는 팔레스티나항쟁세력의 《테로능력》을 떨어뜨리면서 군사작전의 목표라고 하면서 가지지역을 공격하는것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변변한 소리를 하였다.

지금 세력의 많은 나라들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살륙행위를 비난인륜적범죄로 준렬히 규탄하고있다. 이스라엘은 분노한 세계의 민심을 똑바로 알고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팔레스티나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계속 확대하는 길로 나선다면 이스라엘은 더 큰 합기와 보복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혁

그 어떤 광대놀음도 패전의 전통을 바꿀수 없다

미국이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력사의공적으로 만회해보려고 어떻게 획책하고있다.

7.27을 이틀 앞둔 날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지난 조선전쟁에 참전하여 입은 미군의 처참한 손실을 대해 평가하는 《포고문》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는 《포고문》에서 미제침략군 장병들이 조선전쟁에 뛰어든후 침략과 대중적살륙행동에 미쳐달려다가 당한 개죽음을 《평화를 위한 희생》으로 미화분식하면서 마치도 미군의 《피해》으로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표현하였다.

이것이아말로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는 해피한 광대놀음이다.

3년간에 걸쳐 벌어진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승세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는것이다.

그때 미국이 1950년대 조선전쟁전까지 강행한 모든 침략전쟁에서 정전협정에 조인한적이 없었는가.

전국사상 미국이 전쟁을 한 다른 나라들과 승자의 위치에서 강도적인 강화조약을 체결한적이 있었어도 정전협정문에 조장을 누른적이 없었다.

그런 일은 조선에서 처음 겪었다.

미국중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라카스가 자기는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를 지니지 못한 이름을 세게 누른적이 없었다.

그런 일은 조선에서 처음 겪었다.

미국이 우리 나라 남부지역에 간신히 눌러앉은것자체가 패배가 아니고 무엇이랴는 결코 고칠수도 숨길수도 지어 낼수도 없다.

미국이 7.27을 맞으며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패전에서 교훈을 찾은대신 명분도 투박지 못한 오바마의 《포고문》은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보려는것은 오늘의 조미대결전에서 련속 수세에

오바마가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이 엄청난 력사적사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였던데 그야말로 낮가지 속 푸뚜겅같은 과편치한이라는것을 보여주는것이요 전혀 몰랐다면 선입차편적 역시 정적무지몽이라는것을 실증해주는것이다.

맹색이 미국대통령이라면 마땅히 력사공부부터 똑바로 하고 진로좌우를 살펴가며 거짓말도 해야 한다.

오바마를 비롯한 현 행정부고위인물들에게 또 물었듯이.

미국이 조선과 중국 만주, 로씨아의 씨비리지역을 순순대로 침공하여 가로막고 없던데도 작당한 국공명작태라고 《A, B, C 계획》중에서 《A 계획》의 입무도 수행하지 못한것은 승인이야 패배인이다. 이 물음에 그들은 할 말을 못 찾았을 것이다.

우리가 똑똑히 대답해줄수 있다. 그것은 명실공히 미국의 패배이다.

당시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을 끊임없이 위협하였다. 또한 전쟁과정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센 공격에 의해 궁지에 몰리게 되자 비렬하게도 전후에 용납할수 없는 세군전만행까지 빼앗기 감행하였다.

그런 미국이 우리 나라 남부지역에 간신히 눌러앉은것자체가 패배가 아니고 무엇이랴는 결코 고칠수도 숨길수도 지어 낼수도 없다.

미국이 7.27을 맞으며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패전에서 교훈을 찾은대신 명분도 투박지 못한 오바마의 《포고문》은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보려는것은 오늘의 조미대결전에서 련속 수세에

몰리고있는 자들의 가련한 처지를 추켜세우고 《평화수조자》의 가면을 계속 뒤집어쓰고있기 위한 어리석은 술책에 불과하다.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백악관주인들은 계속 교묘되었지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전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트루먼으로부터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백악관주인들은 제 일기내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목적들을 달성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를 핵선제공격하려던 부패정권의 미육군 강경정책이 끝내 실패했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협공격하여 그 무슨 《변화》를 이끌어내보려는 오바마정권의 《전략적내내》정책도 실패하고있다.

사실 참고 견딘다는 뜻의 인내가 전략이라고 하는것자체가 황당했었다.

오바마정권이 《전략적내내》라는것을 내내준다는 정책적조치이며 완전한 전략적파산이다.

시간을 끌수록 미국에 불리해졌다는것을 아직도 리해 못하고있는 오바마정권의 처사가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하다.

오바마정권이 우리와 대결하여온 작산현명인 어떤 강고한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백전백승을 펼쳐왔는가에 대해 깊이있게 잘 알아야 한다.

하긴 우리 혁명의 심오한 원리와 력사를 침략과 강권, 전횡만 알고 돈에 환장한 미지배층이 똑똑히 리해할수 없다는 자명한 리치이다.

옛날병법에도 자기와 적을 알면 싸움에서 이패를 있지만 자기만 알고 적을 모르면 패배를 면치 못한다고 밝혀져있

다. 우리를 바로 볼수도 없고 리해할수도 없는 미국은 조미대결전에서 끝없이 패배하게 되어있다.

력사적으로 뒤편에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처리라는 전통이고 허약관주인들은 계속 교묘되었지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전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트루먼으로부터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백악관주인들은 제 일기내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목적들을 달성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를 핵선제공격하려던 부패정권의 미육군 강경정책이 끝내 실패했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협공격하여 그 무슨 《변화》를 이끌어내보려는 오바마정권의 《전략적내내》정책도 실패하고있다.

사실 참고 견딘다는 뜻의 인내가 전략이라고 하는것자체가 황당했었다.

오바마정권이 《전략적내내》라는것을 내내준다는 정책적조치이며 완전한 전략적파산이다.

시간을 끌수록 미국에 불리해졌다는것을 아직도 리해 못하고있는 오바마정권의 처사가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하다.

오바마정권이 우리와 대결하여온 작산현명인 어떤 강고한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백전백승을 펼쳐왔는가에 대해 깊이있게 잘 알아야 한다.

하긴 우리 혁명의 심오한 원리와 력사를 침략과 강권, 전횡만 알고 돈에 환장한 미지배층이 똑똑히 리해할수 없다는 자명한 리치이다.

옛날병법에도 자기와 적을 알면 싸움에서 이패를 있지만 자기만 알고 적을 모르면 패배를 면치 못한다고 밝혀져있

리 경 수

다. 우리를 바로 볼수도 없고 리해할수도 없는 미국은 조미대결전에서 끝없이 패배하게 되어있다.

력사적으로 뒤편에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처리라는 전통이고 허약관주인들은 계속 교묘되었지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전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트루먼으로부터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백악관주인들은 제 일기내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목적들을 달성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를 핵선제공격하려던 부패정권의 미육군 강경정책이 끝내 실패했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협공격하여 그 무슨 《변화》를 이끌어내보려는 오바마정권의 《전략적내내》정책도 실패하고있다.

사실 참고 견딘다는 뜻의 인내가 전략이라고 하는것자체가 황당했었다.

오바마정권이 《전략적내내》라는것을 내내준다는 정책적조치이며 완전한 전략적파산이다.

시간을 끌수록 미국에 불리해졌다는것을 아직도 리해 못하고있는 오바마정권의 처사가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하다.

오바마정권이 우리와 대결하여온 작산현명인 어떤 강고한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백전백승을 펼쳐왔는가에 대해 깊이있게 잘 알아야 한다.

하긴 우리 혁명의 심오한 원리와 력사를 침략과 강권, 전횡만 알고 돈에 환장한 미지배층이 똑똑히 리해할수 없다는 자명한 리치이다.

옛날병법에도 자기와 적을 알면 싸움에서 이패를 있지만 자기만 알고 적을 모르면 패배를 면치 못한다고 밝혀져있